

VOL **16**  
2018 / 04

# 참고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산업용 특수 페인트 & 신발용 접착제 전문기업  
**PT. Asia Chemical Industry**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

칼라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물에 색을 입히는 것은  
그 물체에 생명과 웃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름다운 **Asia Chemical Industry**입니다.



### 문의 및 상담

한국어 / 김택용 과장  
hp : 0811 978 1066  
e-mail : kimty81@aci-yuwon-biz.com

인니어 / Pak Yustiawan  
hp : 0853 1082 9230 / 0813 8121 7005  
e-mail : yustiawan@aci-yuwon-biz.com

### PT. Asia Chemical Industry

**Marketing Office:**  
Karawaci Office Park, Blok H, No. 25 Tangerang, Banten  
Phone: 021-55790456 (Hunting) Fax : 021-55790454  
<http://aci-yuwon-biz.com>

**Factory:**  
Jl. Raya Modern Industri, No.23 Kawasan Industri  
Modern, Cikande, Serang, Banten  
Phone: 0254-400711 (Hunting) Fax: 0254-401105

**Branch Office:**  
Jl. Raya Ruko Gempol Interchange No 11A  
Gempol-Pasuruan, Jawa Timur  
Phone / Fax : 0343-655320



## 김창범 대사, 신임장 제정... 공식일정 시작



▲ 김창범 대사, 조코위 대통령에 신임장 제정 [사진: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가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김 대사는 제정식을 마친 후

열린 조코위 대통령과의 단독 환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한-인도네시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신임장은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대국에 통고하는 문서로, 파견국의 원수나 외무담당 장관이 접수국에 보낸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김 대사를 포함해 11명의 신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후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이날 환담에 배석한 켈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이 현지 언론에 전한 바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김 대사에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협정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이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했다.

## 주인니 한국대사관과 해외건설협회 아시아 인프라협력센터, '투자법 (인프라 중심) 세미나' 개최



▲ 투자법 세미나 후 참석자 단체 사진 (사진=해외건설협회 아시아인프라협력센터 제공)

주인니 한국대사관 및 해외건설협회의 아시아 인프라 협력센터가 공동 개최하는 '투자법 (인프라 중심) 세미나'가 3월 22일(목) 세키스 타워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지평법무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계약 체결과 이행, 재판

및 부동산 법제 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건설업체의 질의 및 응답 등 논의가 활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대사관의 배석 주 국토관, 해외 건설협회 인프라 협력 센터의 이준 센터장, 지평의 권용숙 변호사, 롯데건설 등 우리 건설 업체 인사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센터장은 대사관, 토지구획공사, 지평과 공동 협력하여 금년도에 "인니 인프라개발 진출 환경조사 및 확대방안"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센터장은 인니 인프라 도시개발 및 건설 정책, 시장동향 및 법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건설 법령 번역/감수, 건설 진출 확대 방안 및 우리 건설업체의 인니 시장 진출시 애로사항과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우리 건설 기업들에게 추가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건설 업체가 인니 건설 법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건설 사업 수주, 개발 및 시행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였다.

## 2018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대통령령, 외국인 고용계획서 이틀 처리로 '간소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취업 허가 절차에 대해 많은 글로벌 기업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29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2018년 제 20호'를 공포했다.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6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발효되는 이번 대통령령은 조코위 대통령이 3월 26일자로 서명했으며, 사실상 지난 전 정부가 발효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4년 제 72호'를 개정한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각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는 서류 접수 후 2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시급할 경우, 일단 고용 후 2일 내 관련 기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를 제출하면 된다.

당시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외국인 고용 계획서(RPTKA) 제출부터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IMTA)와 비자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지적



한 바 있다.

주주이사나 법인감사로 근로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고용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를 발급받을 때 관련 장관이나 기관장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를 통해 받는 임시 체류허가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만료 후 연장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

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보험공사(BPJS Tenaga Kerja)에 등록 후 보험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위한 시설을 제공할 것 등을 의무화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어 교육 훈련 후 교육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 BS 476 Fire Test "CLASS 0"

##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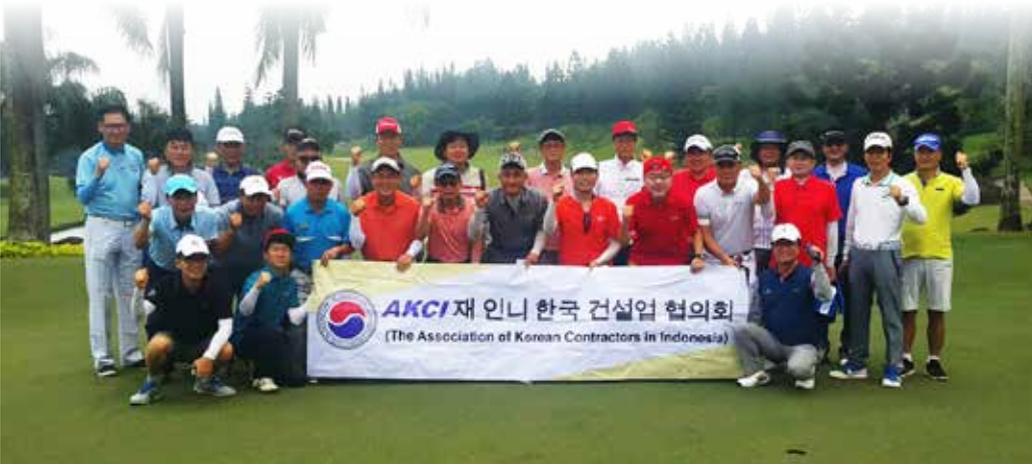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 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 재인니 한국건설협의회 2018년 정기모임 가져



지난 14일 재인니 한국건설 협의회(AKCI, 회장:이강우)는 2018년 첫 정기모임을 보고르 레인보우 CC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석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국토관을 비롯해 해외건설협회 이준 지사장, 신한은행 이해창 전무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인도네시아 한국 건설산업의 상생과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강우 회장은 인도네시아에 건설관련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 향후 회원사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상생과 비전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고 배석주 국토관은 대한민국의 신 남방정책은 가장먼저 인프라 구축산업에 있

다면서 우리 건설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큰 활약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 이해창 전무는 한국 건설기업의 사업에 금융권에서도 적극 참여 해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AKCI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에 많이 알려져 있는 협회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오지를 무릅쓰고 전역을 누비며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현재 중국,일본등의 국가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어 회원사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협업을 통한 승전보를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전년도 회장이었던 현대산업개발 서민



▲ 재인니 한국 건설협의회 회장 이강우(롯데건설 지사장)

종 지사장의 감사패 전달과 참여한 모든회원들의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AKCI의 밝은 미래를 느끼게 했다. 차기 행사는 5월 세미나와 7월 행사가 있다.

# 2018년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지원 협의회 개최



▲ (사진=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인프라협력센터 제공)

주 인니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의 아시아 인프라 협력 센터가 주관하는 '18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지원 협의회'가 3월 27일(화) 주인니 한국 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의회에는 신임 대사이신 김창범 대사와의 상견례를 겸하여, 우리 기관 및 업체들이 참석하여 인니에서의 추진 사업 보고 및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공기업/민간기업 간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는 김창범 대사를 비롯하여, 이명호 총영사, 배석주 국토관, 문양택 상무관, 해외 건설협회 인프라 협력 센터의 이

준 센터장 이외 인니 주재 건설 관련 기관장 및 롯데건설 등 우리 건설 업체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 모임을 통해 우리 민간 건설 업체가 정부와 공기업 등과 합심하여 인프라, 에너지 등 건설 분야에서 최대의 실적을 올리자는 데 동감하였고, 향후 공동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 이런 협의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협의회 후 대사관이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보다 자유롭게 과도한 경쟁 지양 등 건설 수주를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면서,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림통상 '도비도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10일 현지법인 출범... 자카르타 쇼룸 개장

대림통상이 토털바스 브랜드 '도비도스'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정조준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중국으로 불릴 만큼 구매 잠재력이 크고 주방용품 중심으로 생활소비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림통상은 오는 10일 도비도스 인

도네시아법인을 출범하고 자카르타에 쇼룸을 오픈한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제품 공급 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대림통상이 토털바스 브랜드 '도비도스'를 인도네시아 선 보이는 건 높은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와 2억 5000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로 구매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흡소핑 구매 품목 중 주방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활소비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



▲ 대림통상 토털바스 브랜드 '도비도스'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직장 여성들이 많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늘어나면서 미용과 생활용

품 등의 제품이 인기"라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말했다



## 함께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한국 물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글로벌 물시장은 2016년 기준 800조원 규모이며, 2020년까지 약 100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블루오션’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수자원공사와 민간기업이 글로벌시장에 동반진출을 모색하면서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세계일보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22일)을 맞아 파악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규모는 1994년부터 올해까지 약 2조5000억원 규모다. 수자원공사는 1994년 중국 분하강 유역조사사업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했고, 3월 현재 30개국 76개 사업을 완료했다. 또 9개국에서 11개 사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 물 기업의 해외진출이 전환기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스마트 물 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민간과 공공기관의 글로벌 물 시장 동반진출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

## 한국 물산업 ‘800조 글로벌시장’ 뚫는다



### 21일 ‘세계 물의 날’ ... 수자원공, 해외진출 박차

이다. 특히 이 모델은 지난 50년간 축적된 물관리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수자원공사가 주도한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의 수력발전 분야 해외투자사업인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사진)을 비롯해 필리핀·조지아 등지에서 댐 건설 및 운영관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 전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파트린드 사업은 약 5년

간의 건설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상업발전을 시작했다. 30년간의 운영관리 시 연평균 예상 배당 200억원의 국부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수자원공사는 이 밖에도 인도

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지역에서 ‘까리안-세르퐁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만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담조직 ‘물산업플랫폼센터’도 주목된다.

수자원공사의 노하우 공유 및 열린 지원체제로 향후 5년간 약 27건의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을 이루는 게 목표다.

올해 열리는 ‘제8차 브라질 세계물포럼’, ‘베트남 국제물주간 2018’에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박원철 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장은 “공기업으로서 국내 관련 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도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수자원공사는 1997년부터 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까지 97개국 2334명에게 국제교육을 시행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2016년에 아시아물위원회(AWC) 창설을 주도해 해 해외 물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물기업이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그동안 한국 물 기업은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안주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물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수출역량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조직 등법·제도적 기반 미비, 영세업자 난무 및 기술경쟁력 부족으로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지속 성장 중인 글로벌 물 산업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일보

### 한미글로벌

## 인도네시아서 2110억원 규모 CM용역 수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 개발사업 조감도

한미글로벌이 올 초 해외시장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지역에서 CM용역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수주한 복합 개발사업은 총 공사비 211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57 프롬나드(PROMENADE)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단계 CM을 맡게 된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톱 5에 속하는 인터랜드 디벨롭먼트(Intiland Development)사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아파트, 오피스 및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1차, 2차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한미글로벌은 현지 CM사와 함께 1차 사업의 공사 전 과정에서 CM용역을 수행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 중심부(연면적 16만5289㎡)에서 53층 초고층 아파트 3개동 및 부대 복리시설 개발사업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단계 CM용역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국영건설사인 PT PP(Persero)사의 자회사인 피피프로퍼티(PP Properti)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미글로벌은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디자인, 조달, 공기, 공사품질, 안정 등 전 과정에 걸쳐 CM용역을 맡는다.

한미글로벌은 자카르타, 수라바야의 각 개발사업이 추후 2차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추가 CM용역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카르타 중심상업지구(CBD)지역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 CM용역 수주도 예정돼 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 해외 55개국 300여건의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글로벌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55개국에 진출해 글로벌 CM전문기업으로서 지속성장이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제

## PT. KUMGANG INTERNATIONAL

#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방화문 & 패션도어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최대 복합화력 공사 수주

## 서부자바 주 쥘라마야 지역에 1조원 규모 복합 발전소 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서부자바 주 까라왕 군 쥘라마야 지역에 1,760MW(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발주처인 특수목적법인(SPC) 자와사투파워(JSP)와 복합화력발전 건설 프로젝트의 EPC(설계·조달·



▲ 삼성물산이 수주한 자바 원-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조감도.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전체 약

1조원 규모의 '자와 원-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

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주기기 담당인 GE 파워, 현지업체인 메인도(PT Meind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사를 수주했다.

전체 공사금액 약 1조원 가운데 삼성물산 지분은 절반을 약간 넘는 5천100억원 규모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 중 최대 규모로, 준공 후 최대 1,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달 중 시작해 2021년 9월에 준공 예정이다.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3만5천MW 규모의 국가 전력 확충계획의 중요한 공사 중 하나인 '자와 원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삼성물산은 밝혔다.

삼성물산은 인도네시아에서 1989년 제일제당 공장 공사를 시작으로 라자왈리 빌딩, 무아라파와르 가스터빈 발전소, IFC2 빌딩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 중 무아라파와르 발전소는 당시 전력공사(PLN)가 발주한 공사 중 처음으로 공기 단축을 실현했으며, 준공 때까지 무재해를 달성해 인도네시아 부동산령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상을 수상했다.

### 印尼 수마트라 행정부, "철도시설공단, 경전철사업 참여해 달라"



철도시설공단, 방문요청 받고 회사 소개 수준..." 정해진 것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KRINA)이 인도네시아 북(北) 수마트라 지역의 경전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와 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북 수마트라 행정부는 지역내 북부의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 박대근 해

외사업부장이 북 수마트라 행정부를 방문, 관계자를 만나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박 부장은 "북 수마트라 지역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지금보다 우수하고 신뢰할만한 대중교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 수마트라 행정부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선진화된 철도운송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도시설공단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수마트라측의 요청으로 방문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프로젝트 수주도 추진 중이다.

### 현대로템 자카르타 경전철 출고... 아시안게임 수송 맡아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선수단과 관람객 수송에 활용될 현대로템의 열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로템은 지난 21일 창원공장에서 총 8편성(16량)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중 첫 편성의 출고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자카르타 경전철은 현대로템이 작년 2월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JAKPRO)로부터 3천300만 달러 규모로 수주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인 이 열차는 오는 8월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자카르타 지역에 신설되는 노선 중 1단계인 선수촌~경기장(글라빠가딩~라와망운 벨로드롬경기장, 총연장 5.8km, 5개 역) 구간에서 운행한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자카르타

현지에서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45여개국 선수단과 관람객을 수송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로템은 열차 시스템과 성능을 점검하는 시운전을 거친 뒤 오는 10월까지 모든 편성을 납품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전철은 차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기존에 철로 만들어진 열차보다 무게가 줄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력소모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휠체어와 유모차 탑승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승객 편의 시설을 강화했다.

자카르타 경전철은 현대로템이 국내 협력사와 처음으로 동반 해외 진출한 사업이기도 하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제조사인 우진



▲ 현대로템은 지난 21일 창원공장에서 총 8편성(16량)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중 첫 편성의 출고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열차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선수단과 관람객 수송에 활용된다. [현대로템 제공]

산전과 함께 분업해 납품 기간을 성공적으로 단축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경전철 납품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2006년 부산~김해 경전철 50량을 시작으로 인천2호선 72량(2009년), 우이신설 경전철 36량(2011년), 김포 경전철 46량(2013년), 자카르타 경전철 16량(2017년) 등을 수주하며 경전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최초 샌드위치 판넬 생산업체

**PT. KYUNG HEUNG INDONESIA**

www.trustedcompany.com

**SANDWICH PANEL™**  
ROOF AND WALL



MERIT :

- High Efficiency insulation (no need A/C for housing)
- Protection of dampness, insulating effect, and water leakage.
- Long lifetime (approx 20 years)
- Simple erection and saving cost steel structure (CNP distance 1500mm)
- Clean factory

Type of sandwich panel™

Roof : V-250 Type



EPS Panel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Non flammable 2<sup>nd</sup>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Wall : KHW-3 Type



EPS Panel  
Safe board panel (EPS+Graphite)  
(Non flammable 2<sup>nd</sup>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Tile Roof : Genteng-Type

EPS Panel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Length for the above material:**  
Customer request up to 12Mts  
More Than 12Mts to be discu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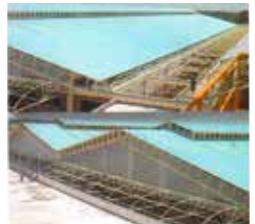
Arch Type Roof : ATR-250

Radius depend upon customers requirement.

Product & Fabrication: Doors, Swing Door, Hanger Door, Louver Etc

**PERFORMANCE**

Korean Customer (2001)



Local Customer (2003)



Foreign Customer (2008)



**Head Office** Wisma Slipi 4<sup>th</sup> floor suite #F403 Jl. S Parman Kav.12 Jakarta Barat  
Telp: (021) 5307244 Fax: (021) 5307256  
CP: Mr. Haryanto Choi Hp: +62 811 956 8710  
E-mail: Haryantochoi48@gmail.com

**Factory** Jl. Raya Serang KM.12 kampung Gebang Cikupa Tangerang  
Telp: (021) 59402532 Fax: (021) 59402496  
CP: Mrs. Lusti HP: +62815-10598501  
E-mail: sndpn@yahoo.com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발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4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5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2030년에 세계 10대 산업국가에 진입할 목표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산업

서밋(2018 Indonesian Industrial Summit)에서 로드맵인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의 3천배에 달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다"라고 말하며 "국내 고용시장을 지키면서 제조업 부분의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게 목표이다"라고 언급

했다. 로드맵은 주력 산업으로 식품·음료, 섬유·의류, 자동차, 화학, 전자 등 5개 분야를 지정했다. 이 5개 산업의 2017년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는 12.67%, 비 석유산업 GDP에서는 70.86%를 차지했다. 산업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개발청(BPPI)의 가간 청장은 "우선 5개 산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17.88%이다. 이 비율은 동남아시아국가(ASEAN) 역내에서도 최고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제조업의 기여도가 10%를 넘는 세계 15개국 중 인도네시아가 4번째로 높다.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GDP를 1~2% 올려 GDP 성장률을 현재의 5%에서 2030년에 6~7%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2030년에는 제조업의 GDP 기여도를 21~26%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 올해 인도네시아 국도 25km에 '플라스틱 도로' 깔린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 택부는 전국의 국도 25킬로미터에 플라스틱 도로로 포장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도로는 일반 아스팔트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녹여 혼합한 포장재 도로로 알려져 있다. 유연성 있는 소재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포장 도로는 앞서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 브카시, 발리 덴파사르,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설치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

아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플라스틱 포장 도로가 깔리는 국도는 북부 수마트라에서 3km, 동부 자바에서 1.3킬로미터, 남부 술라웨시에서 3.5킬로미터, 동부 누사 Tenggara에서 9킬로미터 등이다.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 공학부의 연구 결과가 적용된 아스팔트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섞어 분쇄하는 기계를 국영 플랜트 산업 기계 제조업체 바라타 인도네시아(PT Barata Indonesia) 생산한다. 한편, 플라스틱 쓰레기와 천연 고무를 혼합한 아스팔트 포장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산 천연 고무 사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남부 수마트라의 국도 8.3킬로미터 길이에 설치된다.

## 부디 교통장관, 보고르~수까부미 구간 철도 복선화 공사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인도네시아 부디 교통장관은 4일 서부 자바주 보고르-수까부미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건설 공사를 가속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총 공사비로 1조 루피아를 투입,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뒀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디 교통장관은 "올해는 약 1,740억 루

피아의 예산을 서부 자바주 보고르 짜곰봉-수까부미 짜쭈룩(길이 7킬로미터) 구간 완공에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 구간은 주변 주민의 반대에 막혀 토지 수용 작업이 정체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지정해 토지 수용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목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예산 중 130억 루피아를 노동 집약적 사업에 할당해 일



자리 창출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하루 운행 수를 현재의 6량 편성에서 8량 편성으로 늘린다. 육로

로 5~6시간이 소요됐던 수까부미-자카르타 구간이 철도 이용으로 3시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Pemium Safety  
**ROKY**

안전에 스타일을 더하다

Jakarta Kelapa Gading Cikarang Karawang PT. LAON PT. Inkor Marine Service PT. INKOKOR PT. HORENSO 0821 1289 3377 021 2957 4546 0811 883 824 0812 105 5611

ROKY 안전화 대리점/딜러 모집중

PT. NEW SUN  
Jl. Pemda No 56 Kp. Ciapus Rt 08, Suka Mulia Cikupa, Tangerang  
Telp : +6221 - 2915 9068 ~ 69 | HP : 0811 816 2232  
Email : newsun.indonesia@yahoo.co.id

## 말레이, 인도네시아 연결 21조원대 해저터널 건설 추진

말레이시아가 자국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잇는 150km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눈길을 끈다.

20일 일간 선데이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말레이시아 페락 주 바간 다락 지역을 수마트라 섬과 연결하는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의 골자는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플라카 해협 아래로 150km 길이의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이다.

자히드 부총리는 “이 사업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가 200억 달러(약 21조4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측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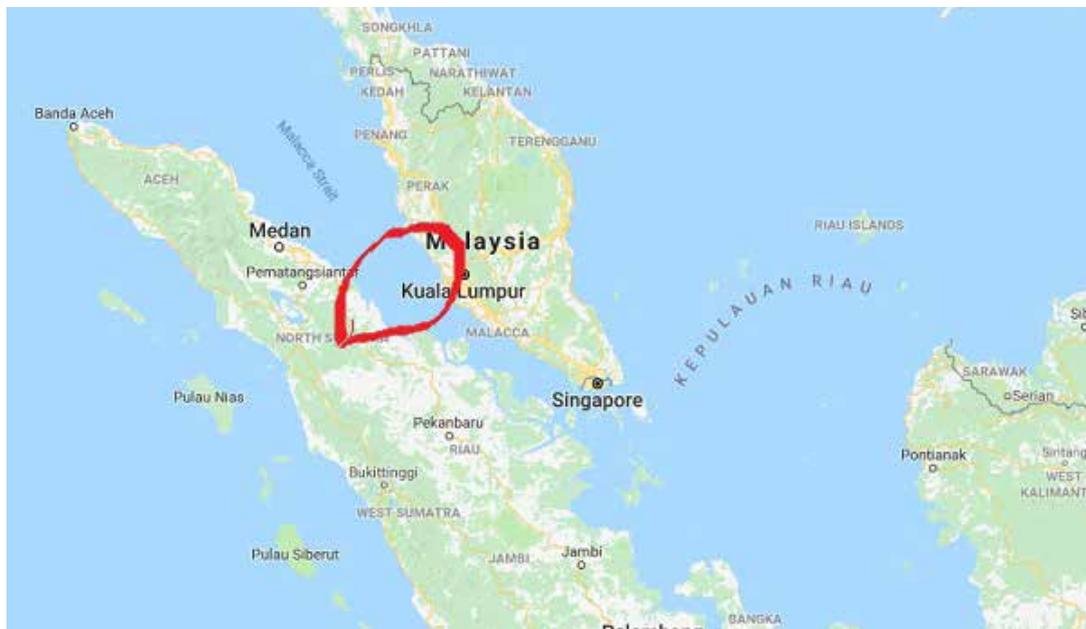
고 자히드 부총리는 덧붙였다.

자히드 부총리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양국 중앙 및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두 나라 모두에 상당한 경제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대대적 투자로 진행되는 동부 해안철도 건설 사업과 동남아 첫 국가간 고속철도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 사업, 서부 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교통망 사업을 다수 추진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멀지 않은 플라카 해협에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안전성이 담보되기 힘들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 붉은 원은 말레이시아 페락 주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서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 [사진 : 구글 지도]

## IT업체, 자카르타 오피스 임대시장 부양

“공유사무실 증가... 오피스 임대시장 견인에 큰 역할”



▲ 자카르타 수디르만 중심비즈니스지역(SCBD). [사진 :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IT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부동산 업체가 올해 자카르타 오피스 임대 산건설팅회사의 보고서를 인

용, 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부동산건설팅회사 존스랑라살르(JLL)와 콜리어인터내셔널은 최근 수년간 IT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내 중심가 오피스공간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물량도 많아서 당분간 오피스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JLL 인도네시아의 연구책임자인 제임스 테일러는 IT기업들이 오피스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특히 중심상업지구(CBD) 지역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온라인게임회사, 여행예약웹사이트 등 관련 국내외 기업들이 2016년과 2017년에 매우 활발

했다”라며 “2018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년 CBD지역 오피스 순흡수면적(Net absorption)은 24만 평방미터로 2014~2016년까지 3년 간을 합한 면적보다 많았다.

2018년 1분기 CBD지역 오피스 순흡수면적은 5만 평방미터로, 2016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카르타 시내 중심지에서 오피스 수요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공유사무실(co-working spaces)의 증가다.

공유사무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교적 신사업으로, 국내외 업체들이 이미 이 사업에 착수했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분기에 IT업체들은 자카르타 A등급 오피스 중 15%

를 임대했고, 연말까지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JLL은 전체적으로 올해 내내 오피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 물량이 많아서 점유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오피스 빌딩을 짓기 시작해 공급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8년 1분기에 완공되어 시장에 공급된 오피스 물량은 189,000평방미터이고, 연말에는 총 630,000평방미터가 공급될 것이다. 스나얀 CBD에 위치한 District 8 Treasury와 Prosperity Towers는 지난해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돼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JLL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 오피스 점유율은 78% 수준이지만 내년엔 75%까지 하락한 뒤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리어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도 JLL과 비슷한 전망을 냈다.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공유사무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디르만, 가뽏 수브로또, 탐린 등 중심지 오피스 수요도 증가했다.

2018년 1분기 자카르타 오피스 수요는 77,600평방미터로 지난해 동기기간의 32만 평방미터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자카르타 오피스 수요 중 30%가 공유사무실 용도였고, 나머지는 전자상거래업체를 포함한 IT업체들이었다.

자카르타 오피스공간 점유율은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분기에 84.1%에서 올해 1분기에 81.1%로 하락했다.

## 산업단지협회, 서부 자바 북동부에 공단 10개소 신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에 따르면 2020년부터 서부 자바주 북동부에 최소 10개소의 공업단지가 순차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개발 업체 5~6곳이 뿌르와카르파와 수방, 마자렝카, 인드라마유 등에서 부지 취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HKI 새니 이스칸다르 회장은 “브카시와 까라왕 등 북서부 지역

은 이미 공단이 포화상태이다. 향후 북동부에 공업단지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새니 이스칸다르 회장은 이어 “제조업 생산설비 지역을 분산할 목적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찾고 있다. 또, 2019년 3월에 개항 예정인 서부 자바 수방군의 뽀뽀만 항구와 마자렝카군 항구, 올해 중반 개항 예정인 끄르파자띠 공항으로 물류량을 분산하려는 정부의 의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부 자바주 북서부에는 산업단지가 22개소 있다. 향후 북동부에 부지 면적 200~2,000헥타르 규모의 산업단지 10개소가 조성될 전망이다.

### [대사관 안전 공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 주의

최근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법

용의자가 한국 기업과 제3국 해외 거래처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관계의 모든 정보를 입수한 후, 거래처 명의로 멕시코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함

용의자는 거래처 관계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여 담당자 행세를 하며 한국 기업과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특정 시점에서 거래대금 송금을 유도함

한국 기업은 이메일 해킹 사실

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메일로 전달받은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용의자는 입금 즉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인출 후 잠적함

\* 거래처 소재지는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등지임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의 피해사례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으나,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를 당할 경우 용의자 검거 및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통신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송금시 거래처 소재지와 은행 소재지가 다를 경우 송금 전 재차 확인하는 등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마천 칼럼]

## 어린 봉황이 우는 소리가 늙은 봉황의 소리보다 한결 맑다

당나라 때의 천재 시인이자 만당(晩唐) 시대 시문학계를 대표한 이상은李商隱(813~약858)이 한동(韓冬)을 위해 즉석에서 시를 한 수 지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중 다음 구절은 두 고고(古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雛鳳清於老鳳聲 추봉정어노봉성

‘어린 봉황의 울음소리가 늙은 봉황의 소리보다 한결 청아하다’는 뜻이다.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젊은이들이 발전하고 강해지는 것을 비유한 구절이자 세대교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비유하고 있다.

일찍이 순자(荀子)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후 뒷 세대가 앞 세대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뜻을 가진 명언(名言)들이 속출했다.

얼음과 물은 다 같은 물이지만 물보다 훨씬 차다는 뜻을 가진 ‘빙한어수(氷寒於水)’, 후배가 선배보다 더 뛰어남을 의미하는 ‘후생가(後生可畏)’ 등이 대표적이다.

맹자는 군자의 세 가지 기쁜 일 중 ‘군자삼락(君子三樂)’을 거론하면서 세 번째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得天下英才而教育之, 삼락야 三樂也)”라고 했다.

모두가 후생의 실력을 인정하

고, 또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후생이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하는 것이다.

아울러 길을 터주고자 하는 선배



▲당나라 말기를 대표하는 시인 이상은은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시에는 당시 세태를 반영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들의 노력과 때가 되어 스스로 기꺼이 물러나는 양보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노욕 때문에 후배들

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를 염치없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제19차 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문 마지막을 젊은 인재의 중요성으로 강조한 대목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예로부터 영웅의 업적은 청소년 시기에 그 기틀을 닦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런 용지를 기르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적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이런 기반을 갖춘 조직과 나라만이 세계사의 선두에 서서 역사를 이끈다. 반면 참신한 인재를 무시하고 심지어 억압한 나라나 조직은 역사의 무대에서 도태된다.

세상사 당연한 이치이자 역사의 법칙이다. 미래가 젊은이에게 달려 있다고 말로만 격려하지 말고 미래를 짊어질 물질적 정신적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인재를 외치고 뒤에서는 인재를 억누르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기성세대들은 하루빨리 도태되어야 한다. 어린 봉황의 울음소리를 기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



**경력**  
한국 고대사의 '한중관계사' 전공 중국 한성시 2007년 명예시민증과 사마천 사학상 등 수여

**대표적인 저역서**  
《첩자고(諜者考)》, 《간서(間書)》,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모든 것(2권)》,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사기를 읽다》, 《완역 사기(현재 3권 출간)》, 《제국의 빛과 그늘》외다수

김영수 (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사마천 칼럼 저자 소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저자 김영수는 한국 고대사의 '한중관계사'를 전공하면서 31년 전인 1987년 사마천(司馬遷)과 《사기(史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26년 전인 1992년 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저자는 학위를 포기하고, 사마천과 《사기》,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공부로 연구 방향을 바꾸었다. 1992년은 중단되었던 한중수교가 정상화된 해였고, 저자는 그간의 공부를 통해 중국이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20년 전인 1998년 저자는 처음으로 사마천의 고향인 섬서성 한성시를 탐방한 이래 지금까지 30차례 가까이 한성시를 찾아 사마천의 유적을 일일이 발로 가슴으로 확인하면서 다양한 교류를 가져오고 있다. 그 공을 인정받은 한성시는 2007년 저자에게 명예시민증과 사마천 사학상 등을 수여했고, 사마천 사당 전시장에 그의 사진을 전시하여 그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을 전후하여 저자는 사마천과 《사기》, 그리고 한성시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중국의 동향과 정책 방향 등을 사

마천 《사기》, 한성시의 변화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26년 전 자신의 예견이 어긋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한편, 한중관계의 심화와 미래를 역사와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저자는 23년 동안 중국 전역의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150차례 이상 탐방했고, 그 대장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인문학적 차원에서 저자는 사마천과 《사기》의 인문정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착한 기업인 정신을 《사기》에 등장하는 역사 속 다양한 인물들의 사례를 연계시켜 강조하고 있다.

저자의 30여 년에 걸친 연구와 그 결과는 그의 다양하고 방대한 저역서에 오히려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인 저역서로는 《첩자고(諜者考)》, 《간서(間書)》,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모든 것(2권)》,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사기를 읽다》, 《완역 사기(현재 3권 출간)》, 《제국의 빛과 그늘》 등이 있다.

**WELCOME-VISA**  
싱가폴 당일 비자 전문

대표 **김정미** (Jay Kim)  
H.P : +65 9337 5852  
카톡 : **welcomevisa**  
E-mail : visa7568@gmail.com

산업 전기 공사 전문

# PT. YUCOM SANJEN

## 기술에 혼을 담다!

PT.YUCOM SANJEN은 16년의 인도네시아 산업현장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PLN 신설 및 증설  
전기 / 계장 / 수, 변전 설비  
고, 저압 / 역률방지 / PLC / CONTROL PANEL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0 222 / 5982 666 Fax : 5984 666  
김종환 : 0815 930 1026 E-mail : hatibuka95@gmail.com

### 남부발전, 中企 동남아 판로개척 ‘앞장’

3개국 수출상담회 개최...701만 달러 수출계약가능 성과 거둬



▲ 남부발전 시장개척단이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회사(TNB)의 코너트 브릿지 발전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부발전은 발전분야 유망 11개 중소기업과 시장개척단을 구성, 지난 3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방글라데시(다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동남아 3개국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남아 3개국 시장개척단은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판로 다각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로 남부발전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중소기업과 시장개척단 구성과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한성중공업 등 11개 국내 중소협력사들은 현지 바이어와 제품 구매 상담을 통해 바이어 상담

총 193회 실시, 수출상담 3,908만 달러, 수출계약가능 701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방글라데시 전력 개발위원회,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회사와의 미팅과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인 Valser, Turcomp를 직접 방문해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홍보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유니슨이테크(파이프 서포트 제조기업)는 글로벌 EPC기업인 GE Power System(말레이시아)사와 현장에서 11만6,000달러 규모 파이프 서포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성중공업(산업용 전동기, 펌프 제조기업)은 방글라데시 현지 에이전사인 BIBIZ LTD사와 현지 정부 및 민간 전력 프로젝트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인도네시아 펌프유튜사인 Olindo Nusantara Abadi사와 향후 수일 내 약 78

만달러 규모의 연간 1,200대 블류트 펌프 납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의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은 발전회사의 경쟁력이며 국내 발전산업 성장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발전회사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지원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인니 교통부, 빠삐반 항구 운영 사업자 입찰 5~6월에 예정



인도네시아 부디 교통 장관은 서부 자바주 수방 지역에 건설되는 빠삐반 항구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오는 5~6월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항구의 유지 관리를 담당할 건설 회사에 대한 입찰은 3월에 종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비쳤다.

부디 교통 장관에 따르면, 운

영 회사의 출자 비율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51% 이상, 일본 기업 49% 이하로 한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출자 비율이 일본보다 커진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측 주주는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 모두 할 생각이지만, 양자의 출자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빠삐반 항구의 운영 사업은 국영 항만 운영회사 플라부한 인도네시아2(PT Pelabuhan Indonesia II, 플린도2)와 민간 인프라 개발 기업 아스트라텔 누산타라(PT Astratel Nusantara) 외에 일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 해양국의 오거 국장에 따르면, 플린도2뿐만 아니라 플린도1,3,4도 빠삐반 항구 운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 공지사항

월간 건설신문 창조는 재인도네시아 건설관련 기업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건설관련 한인업체의 디렉토리를 창조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원하시는 업체는 아래 관련 정보를 주시면 매월 업데이트 시켜 상호 정보공유와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아래 기초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1) 회사명 2) 대표자 성명: 한글, 영문 3) 개인 핸드폰번호
  - 4) 회사 전화번호 5) 회사주소 6) 사용 가능한 이메일주소
  - 7) 홈페이지 주소
2. 위 정보를 보내 주시면 매월 발행되는 건설신문을 무상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3. 저희 지면에 무상 게재되는 디렉토리는 지면 관계상 **회사명, 전화번호(1개), 주요업종, 지역, 이메일** 만 게재해 드립니다. 만약 더 많은 정보를 게재하시길 원하시면 직접 상담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주소 : khong3000@gmail.com  
문의전화 : 021-5579-6569, 0858 9060 0962

### 포스코에너지, 인도네시아서 따뜻한 지역사랑 실천

부생가스발전소 인근 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재능봉사



▲ 신은주 포스코에너지 인도네시아 부생가스발전소 법인장(왼쪽 다섯번째)과 임직원, 마을주민이 안전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에너지 제공)

포스코에너지(사장 박기홍)는 23일 인도네시아 부생가스발전소 인근 뜨갈라푸 마을의 낙후시설 환경개선 및 전기 점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포스코에너지 인도네시아 부생가스발전소 임직원과 합작사인 인도네시아 발전사 KDL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발전소 인근 사원, 보육시설, 학교를 대상으로 건물 개보수 및 페인트 작업, 화장실 칸막이 설치, 배수시설 정화, 거리 및 시설의 미화작업 등 환경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 아동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과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전등 교체 등 전기점검 재능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스코에너지 인도네시아 부생가스발전소 신은주 법인장은 “개선된 환경을 보고 행복해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생가스발전소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수업 시간과 교사를 늘려 매주 화, 목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담은 선물상자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향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점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 x 25mm)
3. 35mm Spandek (920 x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x 110)
5. Genteng Metal (기 와) (82 x 35)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질만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점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외국대학 분교에 100% 지분 허용 전망”



▲ 자료사진 : 픽사베이 이미지

외국대학이 인도네시아에 캠퍼스를 낼 경우 지분 100% 보유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4일 외국대학이 자국 내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 지분 100%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련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조코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교육 부문이 낙

후해서 경제적 여유가 될 경우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다.

토마스 램봉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허용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지분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외국학교나 외국대학이 인도네시아에 분교를 내리면 인도네시아 파트너와 제휴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에 교육 부문 예산을 현행보다 늘리라고 촉구했다.

2015년 과학 부문 국제학생평가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61위로, 이웃국가인 싱가포르(1위)와 베트남(8위)과 비교해 크게 뒤졌다.

###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건설신문 창조(월간)

#### 특징

1) 창조는 건설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5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기업 약 1,000여 업체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SNS를 통한 전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베트남 등 약 10여개국 7,000여명의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김재훈의 세무상식

## 법인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익년 4월말까지이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17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이번달 말일까지로 이번호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월 신고해 온 갑근세, 원천세, 부가세등과 재무제표상 숫자와 불일치할 경우 소명을 해야 하거나 불소명시 해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시에는 아래 항목을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1. 매출 : 매출은 매월 신고된 부가세 신고서 상 금액 합계와 손익계산서에 매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매출액의 1%를 납부한 PPh(2)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자.

2. 인건비 : 인건비는 12월 갑근세 신고분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등 개인용도의 지출에 대하여 갑근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차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 임차료 : 회계처리상 부동산 임차료로 처리가 되어 있다면 발생한 시점에

원천세(PPh(2))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징자문료(로열티), 이자비용, 기타 용역비(서비스대금)에 대해서도 발생한 시점에 원천세(PPh23/PPh26)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감가상각비 :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은 감가상각(Penyusutan)은 정액법, 정률법만 인정을 하고 있고 내용연수도 정해져 있는데 회계처리가 아래 규정과 다르다면 세무조정을 통하여야 한다.

김재훈 대표



6. 기타 비용계정이나 수익항목에 특이한 금액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항목에서 예금, 채권, 채무, 재고자산, 고정자산, 선납부가세, 예수금 등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감가상각비  
-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

구분	상각률	종류
1분류	정률법 50% / 정액법 4년	내용연수 4년 이하 자산 사무기기, 컴퓨터, 소형전열기, 전자제품, 휴대전화 등
2분류	정률법 25% / 정액법 8년	내용연수 4년 초과 8년 이하 자산 에어컨, 선풍기 등 기계장치, 자동차, 컨테이너, 농업용기계장치 등-Mesin Jahit
3분류	정률법 12.5% / 정액법 16년	내용연수 8년 초과 16년 이하 자산 석유, 광물 등 채굴용 기계, 직물 및 염색 기계, 운송업종의 도크 등
4분류	정률법 10% / 정액법 20년	내용연수 20년 초과 건설업종 중장비, 운수업의 기관차 등
건물	정률법 불가 / 정액법 20년	내용연수 20년인 상설 건물

#### 약력

PT. BNG Consulting 대표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사무국 사무차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니세무 자문  
Toray Group (TPJ) 세무자문 위원  
인도네시아 조세변호사 (Tax Lawyer)  
저서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015.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우리기업투자환경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BUSINESS DIVISION

ACE No. 1

토목 / 건축 / 공장 건설사업으로 성장한 PT. ACE E&C가  
신 성장 동력으로 차세대 개념의 HVAC 및 Solar Plant 사업을 시작합니다.

### HVAC Solutions

VRF



빌딩/학교/기숙사/APT

Turbo Chiller



공장/플랜트/발전소

※ HVAC :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 Solar Plant Solutions



ReneSola



ESS

※ PT. ACE E&C는 ReneSola의 인도네시아 Partner 회사임

GENERAL CONSTRUCTION CIVIL - ARCHITECTURE - ELECTRICAL - MECHANICAL - HVAC - NEW & RENEWABLE ENERGY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락처: Mr. STEVE YOUN 0812 -9730 -5553 / 이메일: steveyoun.indo@gmail.com

GRAND W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건설, 토목, 플랜트**

-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 PT. DASOM KONSTRUKSI & TEKNIK**  
자카르타 021 3004-8047
-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22-3252
-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 삼환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중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  
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자카르타 021 720-4272
-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140-2833
-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 SHINHWH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짜까랑 021 8984 1283
-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54 394-297

**공단 및 공사**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  
자카르타 021 515-0754

**ENGINEERING**

-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 다 슈**  
자카르타 021 2940-3042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 PT. ALAM DUNIA ENG & CONST**  
땅그랑 021 5579-8505
-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혹 업체정보의 변경 또는 누락이 있으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khong3000@gmail.com, 0858 9060 0962

-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전 기**

-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ding  
땅그랑 021 5949-2764
-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건축자재**

- PT. RIZKY KIM INDONESIA**  
건축 가설재  
땅그랑 021 5577-8383
-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짜까랑 021 8991-2061/63
-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Abrasive  
땅그랑 021 5940-0081
-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a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 PT. 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Kontruksi Plat Besi, Stain-  
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 PT. KUMGANG HYUNDAI**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2930 5937

- HANSHIN**  
컴프레사  
땅그랑 021 5949-4000
-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틸  
짜까랑 021 8990-8327

-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 에스와이패널**  
EPS 패널  
땅그랑 021 2932-5742

-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 PT. 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뵁 0721 780 151, 0721 781 457

**설 비**

-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절레곤 025 434-0319

-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and  
Environment  
자카르타 021 2902-2342

-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 PT. 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토레이  
땅그랑 021558-6446

-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짜까랑 021 8990-2241

**조명등, 조명기구**

- PT. ZORBA**  
조명등, LED LAMP  
자카르타 0812 6019 4401

-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컨설팅**

-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 4626
-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 PT. GLOBAL CENTER**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7-6454
-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포워딩**

-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 (주)소리항공**  
**PT. 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바구스 투어**  
인도네시아 비자대행  
**BAGUS/ 조은여행**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주말 비자여행!!!  
이제 바구스투어에서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비자 여행**

- ☑ 공항 픽업 서비스
- ☑ 리버보트
- ☑ 점심
- ☑ 공항 센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비자여행  
**일요일도 비자 가능합니다**

평일 12시 전 여권 수령가능  
2~3시 인니 귀인 가능

손님이 원하실 경우  
호스텔 무료 1박 서비스

Office : (+65) 6224 4330  
HP : (+65) 9060 2449, (+65) 9821 3672  
카톡 ID : 소장 김경수 bagusvisatour  
Address : 49A South Bridge Road, Singapore 058681  
E-Mail : bagustour2015@gmail.com

## 전통산업 · 4차산업 갈등, 스마트폰 활용한 O2O로 풀었다

“4차산업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5000만명의 실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를 대비해야 한다” (프리아완 무나프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 장관)  
인도네시아가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로 진통을 겪고 있다. 1·2차 산업이 주를 이루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4차산업이 등장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 성장세는 위의 프리아완 무나프 장관의 발언처럼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충돌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 힘을 놓치지 않고 성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변화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2차산업이다. KOTRA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된 수치인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18%를 차지하는 산업은 섬유, 봉제 등이 주를 이루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이어 낙농업·임업·어업 분야가 전체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호텔·요식업이 뒤이어 13%, 건설 10%, 광업 7%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을 갈등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스마트폰’ 이



다.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 사용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2013년만 해도 2,740만명에 불과하던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는 8,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가 자리잡았다. 고객은 그 선두에 있다. 고객은

인도네시아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10억달러 이상 가치를 가진 벤처기업)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운송업을 시작으로 고마사지, 고뷰티, 고클럽, 고박스 등의 이름으로 택배, 마사지, 미용, 청소, 자동차관리 프로그램, 휴대폰 선불요금 충전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O2O와 온라인서비스까지 전방위적 확장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스마트폰 발달로 고객 외에도 다양한 O2O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O2O 서비스 발달은 다양한 분

야의 산업 발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 다양한 산업의 공존이 갈등이 아니라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저스틴 최 고젝 최고전략관리자(CSO)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싶어한다” 며 “사실 고객과 같은 기업은 고(GO) 생태계 안에서 몇 백만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셈” 이라고 말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신용카드를 넘어 바로 핀테크

산업 육성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 인프라 환경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산업 육성에서도 고젝이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 핀테크 기업 3곳을 인수한 고젝은 본지와외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부터는 ‘고페이(Go-pay)’를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핀테크 시장 투자가 올해는 80억달러(약 8조5,480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체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여기에도 올해는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하에 물류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발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2018 인도네시아 아세안게임이 개최되는 해로 인도네시아는 이 시기를 목표로 경전철, 도로, 고속철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성이 높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활동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준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인프라협력과 센터장은 “인도네시아는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국가” 라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보급과 동시에 금융·건설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산업 간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 꾸닝안 고급 아파트 ‘스피아부디 스카이가든’ 분양 시작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자카르타 스파이부디 인터내셔널(PT Jakarta Setiabudi International)과 일본 부동산업체 도쿄 랜드(Toko Land)는 공동

으로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급 레지던스 ‘스피아부디 스카이가든(Setiabudi Sky Garden, 이하 SSG)’의 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프리분뉴스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파이부디 스카이가든은 총 3채의 타워(가든 타워, 스카이가든 타워, 프래져 타워)와 수영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단지이다. 우선 가든 타

워와 스카이가든의 5가구가 새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투베드룸(93평방미터) 1가구와 쓰리베드룸(135 평방미터) 4가구이다. 가격은 각각 2,300달러와 3,100달러이다. 도쿄 랜드의 현지 자회사 도쿄 랜드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SSG 입주자의 약 40%가 일본인이다. 일본인 주재원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전개한

다” 라고 말하며 “인테리어는 일본인 디자이너가 담당. 가전은 파나소닉 등으로 설치해 일본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로 지었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카르타 남부에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 ‘BRANZ Simatupang(브랜즈 시마투팡)’도 올해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 가설 자재의 모든것!

PT. RIZKY KIM INDONESIA는 한국가설협회의 **안전 인증서**와 **부재별 시험성적서**를 모두 갖춘 Hory korea의 우수한 품질의 System Support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합니다

### PT. RIZKY KIM INDONESIA

- 시스템 써포트 (SYSTEM SUPPORT)
- 비계파이프 (BIGYEI PIPE)
- Steel Frames Scaffolding



**중고 가설 자재 매입**

시스템 써포트  
비계파이프  
유로폼  
Steel Frames Scaffolding



Office : Jln. Imam Bonjol Ruko Pinangsia Blok I No. 1/2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77 8383 HP : 0813 1900 2020(김성하) 0812 8005 0077(김명하)  
E-mail : sungha1891@hanmail.net